

주일의말씀

“높”의 운명은?



김영호 알폰소 신부
교구시목국장

풍경 하나 :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뿔자리를 차지 하려고 벌이는 실랑이.

이를 보신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4,11)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일까요? 기준점, 가치척도가 다른 것일까요? 확실히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쪽(세상, 땅)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저쪽(하느님 나라, 하늘)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쪽의 생각, 기준이나 척도를 거꾸로 뒤집어야만 이해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3), “보라, 지금은 쪼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쪼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복선언(루카 6,20이하)은 이쪽에서 보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통 뒤집어서 저쪽의 기준으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미움을 받고 쪼짐을 당하고, 모욕과 중상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린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세상, 땅)의 생각이나 가치기준으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하느님 나라, 하늘)의 생각, 척도, 기준으로 당신 말씀을 읽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한 15,19),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요한 17,16)

우리는 이쪽(세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쪽(하느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 기준, 가치척도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높”자를 큼지막하게 쓴 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의 시선으로 보고자 그것을 뒤집어 봤습니다. 놀랍게도 “높”이 “쪼”이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저쪽에서는 “쪼” 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기준, 척도는 이쪽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이쪽(세상, 땅)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 살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생명의말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1

집회 3,17-18,20,28-29 히브 12,18-19,22-24ㄱ 루카 14,1,7-14



오늘날 마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2010. 8. 31(화) ~ 9. 5(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아의 거룩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를 강복하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며
저희 안에 성령강림의 특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복음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 지켜 주시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순교자들과 증여자들의 여왕이시며
복음화의 찬란한 별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나이다.
아멘.

-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

생각이 기특해

박성규 엘리 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2주일

입당 성가

460 오묘한 포도나무

화답 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영성 채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파견 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영성의 향기

:: 가난한 사람들

마태오 복음의 진복팔단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란 하느님의 처분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루카 복음에서는 물질적 빈곤의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란 다른 어떤 곳에서든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에 하느님 께만 최고의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적 가난은 부요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복음적 가난은 하느님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명수를 갈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갈증을 영원히 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의 가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가난은 빈곤과는 다릅니다. 이 빈곤은 물질적 궁핍과 필수품의 부족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적 가난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복음정신과 교회정신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순교형태입니다. 본주 주교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아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 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 졌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 분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 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용품들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 옮겨온 글입니다 -

故 최영수 요한 대주교 1주기 기일미사

• 일시: 8.31(화) 11:00, 계산주교좌성당
최영수요한대주교 선종1주기 추모음악회
대구평화방송 개국14주년 기념
• 일시: 8.31(화) 19:30, 대구오페라하우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3(금)은故박상태(루도비코)신부6주기입니다.
9.3(금)은故김규태(디모데오)신부6주기입니다.

★ 모임행사 ★

희망원 수탁30주년

기념행사 & 문화센터·운동장 축복식

• 일시: 9.1(수) 11:00, 대구광역시립화랑원 내
• 내용: 1부 축복식, 2부 기념식 축하공연, 3부 축하연
• 문의: 641-2454

★ 피정 성소모임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 일시: 9.4(토) 16:00~5(일) 14: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고등학교생 이상~만3세 이하 미혼 남성
• 문의: 010-8353-2323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첫째 주 일 14:00
• 장소: 대구 이곡동 수녀원
• 문의: 587-2898 / 016-570-0939
※ 성소상담문의 언제나가능(http://www.immkor.org)

한국의방 선교회성소모임

• 일시: 9.5(일) 11:00, 서울본부
• 문의: 010-4555-7526(kmsvocation@daum.net)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지도:최봉도신부)

•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일시: 9.27(월)~29(수) 10:22(금)~24(일) 11:26(금)~28(화) 12:17(토)~19(일) 14시 시작~14시 마침
• 장소: 경북 왜관 성 베네딕도회 피정의 집
• 문의 및 신청: 010-5613-1762 / 054-971-0722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프로그램

• 기간: 10.2(토)~11.20(토) 총 8회
• 일시: 매주 토요일 15:00~ 저녁기도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지도: 허준종 가브리엘 신부(OSB)
• 문의: 054-970-2000, 수강료: 10만원

★ 모집 교육 ★

제2회 성경암송 발표대회 안내

• 일시: 11.21(일) 예정
• 신청: 10월 한달(각본당 공문 발송 예정)
• 문의: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젊은이 선교활동 봉사자 구함

• 대상: 20대 남녀 교리교사 출신 우대
• 신청: 한국전주교구가두선교단(계산성당문화관 3층) 781-6100(leepan-seok@catholicism.org)

최시동 신부님과 함께하는

봉사자를 위한 교리교육

• 문의: 평신도 신학교육원 660-5105~6

2010년 2학기 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철학, 성서론, 전례, 윤리신학2, 사목신학, 영성지도상담, 복음화소피치, 원문성경연구, 영어성경, 성경읽기방법, 신약, 구약 성경입문
• 개강 및 문의: 660-5105~6

프란치스코 영성 특강

• 일시: 9.9(목) 저녁미사 후, 월배성당
• 주제: 프란치스코의 삶과

영성 안에서 본 성경

• 주관: 끈배루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발표자: 프란치스코 코코 신부

한티순 교성지 후원회원 모집(054-975-5151)

성지의 보존과 개발에 함께 할 후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회원의 구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 특장: 모든 후원회원을 위한미사월1회봉헌, 사망시 연미사 봉헌, 소득금제용 기부금영수증발급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 과정: 학점은행제(사회복지, 아동음악전공), 음악원, 일반과정
• 기간: 8월~ 개강 전까지(8.30개강)
• 문의: 526-3413~5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과정 교육설명회

• 일시: 8.30(월) 10:00~12:00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 3층(성모당내)
• 대상: 노인복지(요양)활동에관심있는 분 누구나
•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에니어그램 1단계교육(8주간)

• 일시: 9.7(화) 19:00(저녁반), 9(목) 10:00(오전반)
• 장소: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상담심리센터
• 문의: 254-2664 / 693-4566(cafe.daum.net/spc1009)
※ 자세한 내용은 카페 공지 참조 바랍니다.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5기

• 일시: 9.10(금)~12(일), 회비: 16만원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선교에관심 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08

가톨릭 고려수지침봉사자학교 수강생모집

• 수지침자격증반 1년과정, 8만원(목)10:30
• 생활수지침반 4개월, 4만원(화)19:30
• 문의: 회장 김정자데레사 254-6115

★ 안내 ★

5대리구 가나강좌

• 일시: 9.5(일) 13:30~17:00
• 장소: 5대리구 청, 문의: 054-468-54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 3(<http://www.성가정임양원.com>)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9월 2일(목) 오후 2시	성모당	성모의 기사화 미사	9월 4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내수도원
미바회 미사	9월 3일(금) 오후 2시	성모당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심미사	9월 4일(토) 오후 2시	성모당

MRI·MDCT 대구제일 방사선과의원 소장 전영진(바오로) TEL. 053)756-0161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755-7222 교육장(성모당내) 교육원 가평3층	3代를 전통과 신도봉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고 다양한 제품류” 노인성 질환, 성장기 어린이, 갱년기 여성 등 웰빙건강식품(교우님 특별 우대) 대표이사 : 양대석(안토니오) ☎ 428-8002, 011-528-8008	365 HOSPITAL 삼육오 관절경인공관절 수술전문병원 위치:비산네거리(구 정상여상맞은편) ☎ 053)720-0320, 720-0365 원장 우병철 안토니오 원장 안혁수 베네딕도
Solco 솔 고 의 료 기 ■전위치료기(12,000V) - 피를 맑게 ■메트(온열·전위치료) - 전자파 원천 제거 수백과차단 ■이온수개(알칼리화원수, 산성수) - 미국 FDA 승인 963-1666 장정연(막달레나)	자 금 성 중국요리관련문서담당 늘 처음처럼... 최고급 재료를 고집합니다. 2007ISO9001-2000 품질관리인증업소 ☎ 767-6700 •수성구 황금동 국민은행 옆 • 정 경 숙(스텔라) 황 기 철(요한)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비만·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9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